

학교탐방

천진초등학교

“밝은 마음 푸른 꿈 세계를 향하여”

행복한 학교 37프로젝트 실천 ...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기 등 3대 중점 추진 과제 설정

아름다운 봉포 해변과 항구를 품은 8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진초등학교(교장 장영수)는 1925년 개교 이래 그동안 총 5,711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장영수 교장

지난해 9월 1일 부임한 장영수 교장은 ‘밝은 마음 푸른 꿈 세계를 향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전교생 111명 모두 참되고 바르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어린이, 기초와 기본이 충실한 창의적인 어린이, 소질과 특기를 찾아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으로 아침독서, 독서논술,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탐구와 창의의 과학정보교육’으로 탐구실협동심의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 강원예대원 활용수업 전개, 방과후 생태환경 탐구교실 및 날씨와 우리생활 기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촘촘한 틈새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RM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의적 현장체험학습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학력 신장을 위해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기’, ‘넓고 깊게 공부하기’, ‘좋은 수업 만들기’ 3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복습일기를 통한 자주적 학습태도 기르기, 학급별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 구안 적용, 교과 특성에 따른 전문가 활용수업, 학생 체험중심 실기·실험·실습교육 강화, 1교사 1수업 브랜드 운영을 통한 수업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뒤떨어지는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총체적 예방, 진단, 관리 시스템인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색교육은 자신의 교육활동 결과물을 모아 연말에 책으로 펴내는 ‘나의 발자국 소중한 나의 책 만들기’로 잠재능력을 키우고 성장기록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정구로 학교 전통세우기’로 전



천진초등학교 전경

교생이 정구를 배우며, 2011 강원도소년체육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하여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밖에도 ‘어머니 폴리스’를 조직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장영수 교장은 학교 특성화 방안으로 ‘사랑과 신뢰의 교사 문화’, ‘밝고 건강한 학생 문화’, ‘참여의 기쁨 학부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복한 학교 37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강화하고, 행복학급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바른 인성과 창의력으로 꿈을 키우는 학생인권 존중문화 조성, 학부모 참여 학교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며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결집하여 모두를 위한 행복한 학교 건설과 강건한 천진초등학교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9>

고성팔경(高城八景)⑤ 통일전망대(統一展望臺) I

통일의 소망을 간직하고 바라보는 금강산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서 7번국도 따라 2분정도 북상하면 마차진리 188번지 소재한 통일안보공원(출입신고서)이 나온다. 통일전망대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안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북상하면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명파(明波)마을과 민통선 저진(제진) 검문소에서 출입신고서 확인하고 3~4분가량 올라가면 고성의 최대 관광지 자리 잡은 통일전망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남한 최북단에서 육안으로 북녘과 금강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며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 망향과 분단의 설움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명소로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통일전망대(統一展望臺) =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31번지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57,332㎡이다. 육군전진부대가 세운 것으로 사업기간은 1983년 7월 15일에 착공해 이듬해 2월 9일 준공하였다. 총공사비 3억 8천만 원 들어 높이 8.8m의 2층 슬래브 건물이다. 규모는 1층과 2층 각 52평씩으로 10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15평 등 총 119평이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 모두에게 통일의 의지를 심어주고, 안보의식 고취, 장병들의 정신도장 활용으로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분단 현실의 아픔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목적으로 1층

은 정신교육실(통일관)에 ‘민족의 얼’, ‘통일의 의지’, ‘통일을 향한 전진’ 등 3실로 세분해 한국전쟁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각종 무기와 장비, 금강산의 대형 모형·사진, 북한의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120석의 안락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하게 쉬면서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북쪽 면은 모두 유리창으로 설치하였다. 내부와 외부에는 고해상도의 망원경이 마련되어 육안으로 미처 보지 못하는 풍경을 더욱 세밀히 살펴볼 수 있다.

강원발전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관람객은 57만 4770명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에서 매년 1월 1일 ‘고성 통일전망대 해맞이 축제’가 새해 첫 문을 연다. 새해 해맞이 축제를 열어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며 행사내용으로 통일기원 범종 타종식, 군악대 공연, 소원성취기도, 퓨전국악 공연, 소망 풍선 날리기, 사랑의 우체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앞으로도 새해 해맞이 축제가 우리나라 최북단으로 금강산 가는 길목으로서 ‘녹색성장’, ‘통



통일전망대(왼쪽)와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구선봉.

일고성’이라는 굳은 슬로건처럼 통일전망대에서 맞는 의미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남과 북이 서로 맞대고 있는 통일전망대는 비무장지대(DMZ)와 남방한계선이 만나는 해발고도 70m 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 1984년 2월 18일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새로운 안보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통일 전망대는 금강산까지는 최단 16km, 최장 25km밖에 되지 않아 일출봉(日出峰:1,552m)·월출봉(月出峰:1,574m)·채하봉(彩霞峰:1,588m)·집선봉(集仙峰:1,351m)·세존봉(世尊峰:1,160m)·옥녀봉(玉女峰:1,424m)등의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의 대표적인 봉우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고봉인 비로봉(毘盧峰:1,638m)은 맑은 날에만 보인다. 외

금강을 뒤로하고 절경과 손에 잡힐 듯 다가서는 해금강은 말무리반도 끝으로 해만물상, 현종암, 복선암, 부처바위, 사공바위, 백바위가 바다위로 웅기종기 앉은 채로 줄지어 있다. 금강산 1만 2천봉의 끝자락에 있는 구선봉(낙타봉, 187m)을 앞에 두고 조그만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호수가 바로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로 유명한 감호(鑑湖)이다. 지금은 직접 가보지 못하고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있지만, 이곳이 가히 천하제일의 명소가 아닐까 싶다.



김광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